◇제원스님은 문학을 통한 포교를 위해 도서출판 비 해피를 설립하고 첫 포교소설 〈엔트런스〉를 펴냈다.

삶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삶의 시한이 80년이라 한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의 문턱에서 누구나 한번쯤 인생의 좌표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하늘과 땅처럼 부와 빈곤이 교차하는 미국,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라스베가스의 풍경,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현장 교육이 아닐까.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한 제원스님이 대자유를 화두로 문학을 통한 포교활동에 뛰어 들었다. 장산(張山)이란 필명으로 처음 쓴 장편소설 〈엔트런스〉(비·해피 刊). 제목인 '엔트런스'가 의미하는 것은 멋진 인생으로 가는 문.

라스베가스 무대로 삶의 본질 눈뜨는 사실적 과정 묘사

제원스님 첫 포교소설 '엔트런스'

욕망 속으로 들어가 대자유 화두 찾는다

소설의 무대는 수행이나 구도의 길과는 상반된 돈과 여자 도박 환락의 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다.

성년을 앞둔 스무살 젊은이가 부모에게 인생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라스베가스로 무전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블랙잭의 달인'이자 인생을 달관한 채 독신으로 살고 있는 미스터리 맨을 만나 사부(師父)로 삼는다. 라스베가스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열흘동안 사부의 도박철학을 통해 젊은이는 삶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의 핵심이다. 흥미를 끄는 점은 두 주인공이 실존인물이란 점과 수행자였던 사부가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젊은이에게 삶의 의미에 눈뜨게 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생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자문해 보고 자문해 보라'는 따끔한 질책은 선불교의 화두처럼 주인공은 물론 독자들까지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극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자유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물질(돈)로 부터 얽매이지 않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제원스님은 82년 미국 워싱턴 법주사를 창건하고 현재 길음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등 국제 포교및 복지 분야에 정진하며 그동안 〈이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등 3권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스님은 이번 소설의 출간과 함께 도서출판사 비·해피도 설립했다. 전현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해피 출판사는 앞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소설을 중점적으로 출간함은 물론 신인문학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원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과 사회, 인생에 대한 도전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가치있는 삶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소설을 썼다"며 "현대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도전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횃불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의 이유를 설명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미국서 '원각경' 출간

찰스뮬러교수 한 중 일 불교 선수행법 분석

미국에서 〈원각경〉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천년동안 정각에 이르길 염원했던 동아시아 스님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던 〈원각경〉. 찰스 뮬러교수(日. 도요가쿠엔대학)가 조선 초기 배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수호했던 선승 기화(1376~1433) 스님의 저서 〈원각경소〉를 번역하고, 한국·중국·일본불교의 선 수행법의 근본 철학을 분석한 〈원각경(The Sutra of Perfect Enlishtenment: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뉴욕주립대 출판사 刊)을 발간했다.

'크고 올바르며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완전한 경전'이라는 뜻을 갖은 〈원각경(圓覺經)〉은 본래 부처님과 문수·원각보살 등 열두보살과의 문답형식으로 엮어진 경전. 이 책은 기화스님이 6백년전에 남긴 부처님의 불이(不二)와 삼매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식과 상상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말과 글로써 '원각 수행법' '돈수와 점수' '무지와 고(苦)의 본성' 등을 주제로 총 12장으로 엮어졌다.

오종욱 기자

승가대 '원효전서 일자색인집' 펴냈다

한문경전 전산화에 기초가 되는 일자색인집이 나왔다.

중앙승가대학교는 한문경전 연구 자료집으로 〈대해도경종요〉, 〈법화종요〉, 〈본업경소〉 등 원효전서 일자색인집을 펴냈다. 이 일자색인집은 전산원 김응철 교수가 원도우 환경에 적합한 일자색인 생성과 검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효전서 원문을 입력, 일자색인 작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한문 불교문헌들을 전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경전 중에는 어려운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운영체계에서 충분한 한자 코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일자색인집은 경전 전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한문경전에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일자색인집을 출간했다"며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 등 프로그램을 개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 3권 8만원〉

동국대 역경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4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外〉 〈좌선삼매경 外〉 〈칠불팔보살소설대다라니신주경 外〉 〈대승보요의론 外〉 등 4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조탑법 즉 탑을 세우고 다라니를 염송하는 공덕에 대해 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운허스님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출간됐다. 이 경은 인쇄와 필사 등을 통해 탑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 최고의 목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좌선삼매경〉은 세상일을 관찰하여 번뇌를 없애는 삼매법에 대하여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으로 상·하 두권이다. 상권에서는 나쁜짓을 하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권에서는 삼매속에서의 불법 수행법에 대해 각각 설하고 있다. 이 책에는 마등가경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칠불팔보살소설대다라니신주경〉은 석가모니를 비롯 일곱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포함한 여덟 보살 그리고 하늘 귀신과 용왕들이 설한 주문과 효험들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대승보요의론〉은 10권으로 대승의 중요한 뜻에 대하여 해석한 논. 이 논에서는 70여종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신심과 보리심과 자비심, 대승과 열반, 바른 교리와 바른 행위, 육바라밀 등을 설하고 있다.〈동국역경원, 값 각권 1만5천원〉

한글대장경 115종 품절

동국대학교 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이 발간한 한글대장경 2백65종 가운데 1백15종이 품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역경원은 품절된 종수에 대해 수정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종별 1백여권을 이달내로 출간한다.

최근들어 품절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글경전에 대한 불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역경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소설로 읽는 백제 불교의 日전래

백제화원 | 이연승 옮김

일본의 천황과 왕족들은 정말 백제인이었을까. 646년 대화개신(大化改新)의 비밀을 소설형식을 빌어 완벽하게 재현한 〈백제화원〉이 나왔다. 백제화원은 일본이 백제의 꽃밭과 같이 백제인들에 의해 건설되고 만들어졌음을 상징하는 제목이다.

643년 2월부터 645년 6월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도유라사-매화, 백제대사-자양화 등 사찰과 꽃을 주제로 한일고대사의 수수께끼가 파헤쳐진다. 신라학승초청 법회 통해 미륵보살에 심취해 메이지시대에 국보1호로 지정하게 된 이야기, 가쓰라기 황자에게 백제어와 학문을 연마토록하는 이야기 등이 저자 우다노부오의 유려한 문체와 곁들여 재미를 더한다. 〈디자인하우스, 값7천5백원〉

화제의 책

중국철학 깊이와 넓이 총정리

중국 철학사 상·하 |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국철학사〉 완역판이 나왔다.

이 책은 중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풍우란이 1934년 강의한 것을 토대로 펴낸 〈중국철학사〉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성규씨가 옮겼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국철학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자학시대, 경학시대로 상·하 2권으로 번역된 이 책은 시대별로 구분돼 중국철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무엇보다 남북조, 수당의 불교역사도 수록돼 있어 주목된다. 저자는 역사상 한 시대의 대유로서 스스로 일가를 세운 분들은 사상과 학설이 대부분 탁월하게 수립되어 현재의 안목으로 보아도 불멸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까치, 각권 2만원〉

채외신간

마야와 춤을

독일의 신학자 프리츠 빌헬름이 펴낸 〈마야와 춤을(Dancing With Maya)〉은 인도 여성신 가운데 '마야'의 상징성을 살피고, 여기에 양자물리학의 법칙을 대비시켜 인도의 철학사에서 불교가 태동하는 이유와 여성신의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Zero & One 출판사. ISBN 0966954408. p512)

섬에 있으라

"수행자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에서 참모습을 찾아야 한다." 수행자의 길을 잠언적 문체로 서술한 야나 께마스님의 〈섬에 있으라(Be an Isalnd)〉가 출간됐다. 야나 께마스님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의 모두 것이 부처님의 삶과 다름 아니라고 강조한다. (Wisdom 출판사. ISBN 0861711475. p160)

십이연기의 성립과…

십이연기설을 아함경전에서 나타난 '성도법(成道法)'으로서가 아닌 후기 학설이라는 부분을 조명한 〈십이연기의 성립과 불타의 연기〉가 발간됐다. 십이연기의 변환, 십이연기의 성립에 대해서, 십이연기성립의 고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시우라 칸쇼(橋浦寬照) 著, 개산당(開山堂) 刊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2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3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6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7	입산	재 연	문학동네
8	원효(영원한 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9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10	위빠나사 33일	법 산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과학학술대회 초청연사로 氣수련의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편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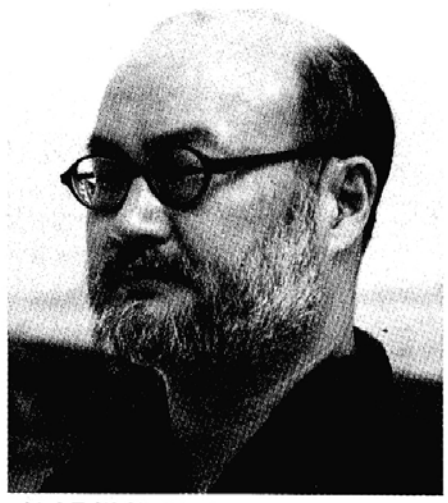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마음닦기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비판·용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계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서빌딩/안국역·종로3가역)

특별부록 ····· 韓定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목성 가르침, 들기만 하면 깨달음을 안내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 주(駐) 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라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지가 됨.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의 대륙역사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 | 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